



**새아침 맞는 통일전망대 미륵부처님**

찬란한 해넘이. 동해의 어둠을 가르고 솟구쳐 오른 해가 온 국민의 시름을 씻어주었다. 한 세기를 마무리 하는 올 해는 새로운 세기를 맞는 설레임이 있어 더욱 활기차게 시작됐다.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에 서서 백년을 바라보며 통일의 염원을 전하고 있는 미륵부처님을 비추는 새아침의 햇살은 북 동포들에게도 따스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다. 고영배 기자

##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고산스님 당선

29일 1차 투표 283표중 167표 얻어...투표참여율 90%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에 고산스님(64·쌍계사주지)이 당선됐다. 구랍 29일 오후1시부터 조계사 대웅전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고산스님은 1차 투표에서 167표를 얻어 총무원장에 당선됐으며 지선스님(52·백암사주지)은 115표를 얻었다. 11월 12일과 18일 두차례의 무산 뒤에 치러진 이날 투표에는 74명의 종회의원, 240명의 투표인단 등 전체 투표인단 314명 가운데 90%인 283명이 참가해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에는 중앙종회의원과 전국 교구본사에서 고부 참여했으나 총도사 선거인단 10명은 전원불참했다. 정회회의측 상임위원급 스님도 일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효표는 1표가 나왔다.



◇30일 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 고산스님(오른쪽)에게 지선스님이 축하 인사를 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원로회의, 고산 총무원장 인준

22명중 14명 참석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해암)는 구랍 30일 오전 10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8차 원로회의를 갖고 고산스님을 제29대 총무원장으로 인준했다. 이날 회의에는 22명의 원로위원 스님 중 의장 해암스님과 부의장 원담스님을 비롯 석주, 운경, 응당, 승산, 녹원, 탄성, 지종, 법전, 정천, 성수, 도원, 보성스님등 14명이 참가했다. 원로회의는 또 11월 30일 승려대회 결의사항을 정식 인준 했으며 11월 14일 구룡사 원로간담회 소집과 결의사항은 무효임을 결의했다. 한편 원로회의의 사무처장에는 성법(진주 호국사 주지)스님을 임명했다. 임연태 기자

## 한국불교 개선사항 '사찰재정 공개' 첫째과제

현대불교 '99 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50제 선정

"사찰재정은 명명백백하게 공개 운영돼야 한다." 승가, 재가를 불문하고 불자들은 한국불교의 제1의 개혁 대상으로 '비공개 사찰재정'을 꼽았다. 본지가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란 제목의 99년 연중캠페인을 기획, 구랍 12일부터 23일까지 교계에서 광범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부대중 50명에게 주제 선정을 의뢰해 확정된 50개 주제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사찰재정 비공개'를 '고칩시다'의 주제로 제출한 사람은 절반이 넘는 26명(승가 10, 재가 16)이었다. 승가, 재가 모두에서 첫 번째로 꼽았다. 이는 사찰로 들어오는 돈의 규모를 밝히고 집행에서 결산까지 통제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이의 철저한 시행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사찰분류와 승려도박을 불교를 얼룩지게 하는 원인이 '보이지 않는 돈'에 있음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주제 선정자들은 또 '무너진 계율', '승가위주의 종단운영', '문중의 파벌 조장', '총무원 역할'을 상위 5위로 꼽아 지난 해 7월 승려도박사건과 11-12월 터진 조계종사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4면에 50개 주제>

50개 주제 가운데 '사문화된 종헌중법', '승려대회 날밤', '선거제도', '승려교역' 등 승단에 관계된 것이 21개로 전체의 42%를 차지해 한국불교 발전의 걸림돌과 도약점이 승단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스님들의 도박 음주 흡연과 흔들리는 계율을 지적해 호르러진 승중의 모습을 반영했다. 이는 주제 선정에 참여한 승가, 재가의 구분을 두지 않고 나타나, 스님들 스스로도 승가의 변화를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도들과 관계해서는 '기복신앙', '재약할 못하는 신도회' 등을 꼽아 재가자의 자기점검도 촉구했다. 또 '사회복지', '인공문제 소출', '관공사찰 포교', '농어촌포교' 등도 과제 선정에 더욱 활발한 사회, 포교활동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번 주제 선정에서는 또 '보통 문화 부재', '잃어버린 무소유 정신', '전문가 양성 무대책' 등 한국불교가 지닌 전반적인 문제점도 개혁과제로 떠올랐다. '인색한 문화·예술 지원'도 문제로 제기돼 주목됐다.

50개 주제는 "한국불교, 이대로는 안된다"는 불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이며, 한국불교가 새로워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본지는 99년 한 해 동안 매주 1개씩의 주제를 실어 한국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임연태 기자 (ytim@buddhapia.com)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 해가 밝았습니다. 기묘년 토끼 해를 밝히며 떠오른 찬란한 햇살이 독자 여러분의 가정을 일년 내내 밝혀 주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위축된 경제 상황으로 많은 이웃들이 거리로 나서야 했습니다. 또 불자는 물론 국민들은 예기치 않았던 조계종 사태로 가슴에 멍울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절 일수록 희망은 더욱 새롭습니다. 조계종 사대

가 불교발전의 새 디딤돌이 되어 한다는 외침이 드높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일궈내는 지혜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희망만을 노래하고 나 보다는 이웃의 기쁨에 더욱 즐거워하는 한해가 되도록 현대불교신문은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 신년 특집 28면 발행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치자' 50제	4면
카담: 조계종 개혁을 위한 과제	5면
2000년을 여는 불교자상포럼 포틀로그	9면
고령화시대의 불교역할	11면
선방일기	12면
시방세계: 99년 원력불자들	13면
경전속 토끼설화·불교 기묘년사	16면
불교의 통일운동	21면
99년 한국불교 정보화 어디까지	25면
제4회 신행수기 당선작 발표	22-23면

## 영각사 극락영묘전 상량기념법회

1월 17일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영각사에서는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불교복지 차원의 초현대식 최첨단 시설의 극락영묘전 상량기념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불기 2543(1999)년 1월 17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대한 불교 조계종 근자본 영각사  
 ■종명: 탄성 르스님

■행사안내  
 제1부: 상량식기념법회  
 제2부: 불자 연예인 축하공연

### 부처님 정법을 구현하고 있는 영각사 극락영묘전

●대한불교조계종 영각사  
 TEL:(0345)498-7700(대)  
 ●현장 상담실  
 TEL:(0345)498-8081~2

문화사업단  
 TEL:02)792-3113 FAX:02)792-8558